

# 범여권 3당 통합 논의 급물살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 민주당 등 범여권 3당이 조만간 실질적인 통합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그동안 '민주당 중심의 통합론'을 내걸고 완고한 태도를 보였던 민주당이 열린우리당, 통합신당과 적극 대화하겠다는 담화였던 대화의 물꼬를 틀 기미를 보이자 지지부진하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열린우리당 내외의 책임 있는 인사들과 중도개혁세력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겠다"며 중도개혁세력 통합추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했고,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이에 화답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정 의장은 10일 오전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우리당 통합추진위 회의에서 "어제 박 대표가 제안한 통추협은 과거 내가 제안한 제정과 연속

정세균-박상천 오늘 회동 '중추협' 논의

통합신당 김한길 대표도 어제 민주 방문

회의와 큰 맥락에서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며 "언제든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당 정 의장과 민주당 박 대표는 11일 오전 여의도 모처에서 첫 회동을 갖고 박 대표가 제안한 중도개혁세력통합추진협의회(중추협) 구성 문제 등을 논의기로 했다.

우리당 핵심당직자는 10일 "박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중추협 구성을 제안한 뒤 정 의장이 환영의사를 밝힌 만큼 내일 두 사람이 만나 조건 없이 통합문제를 논의해 보기로 했다"

고 밝혔고, 민주당 박 대표 측 관계자도 "중추협 구성문제 등을 포함해 양당 대표가 첫 회동을 갖는다"고 전했다.

회동에는 정 의장과 박 대표를 비롯해 양당 사무총장과 대변인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신당도 민주당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물밑대화를 가속화할 방침인 가운데 이날 오후 김한길 대표가 취임 인사차 민주당사를 방문, 박상천 대표와 통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논의가 원만하

게 진행되면 세 정당이 동시에 신당 창당에 나서는 '원포인트 대통합'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순차적인 통합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합 당사자인 이들 세력이 적극적으로 대화창구를 개방하고 나선 것은 5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와 더 이상 통합을 미룰 수 없는 각당의 절박한 사정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한편, 우리당 정대철 상임고문과 김덕규, 한광원 의원 등 11명은 모임에 갖고 "대통합 신당 창당의 대의에 적인 반응을 보이며 물밑대화를 다해야 할 시점"이라며 제정과연석회의의 구성을 제안하고, 종교계 원로들이 논의 중인 대선주자들의 광주 5·18묘역 공동참배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박상천 대표(오른쪽)가 10일 여의도 민주당사를 방문한 중도개혁통합신당 김한길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남·북·미·중 정상회담 논의할 듯

이해찬 전 총리 방미

이해찬 전 총리가 10일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회 위원장 자격으로 미국 방문 길에 올랐다. 이 전 총리는 9박 10일의 방미 기간에 로스앤젤레스(LA)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리는 6.10 화평 2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그는 또 워싱턴에서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

원 아·태소위원회장과 면담을 갖고 존 햄머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장 주최 간담회에도 참석한다.

그는 방미기간 6자회담 진행상황을 비롯해 북핵, 남북관계 등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 문제 전반에 걸쳐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전 총리가 그동안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 남북미중 4개국 정상회담체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미국 조야와의 접촉에서 4개국 정상회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통합신당 원내대표 최용규 의원

사무총장 이근식 의원

정책위장 변재일 의원

대변인에 양형일 의원

중도개혁통합신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원내대표에 최용규 의원, 사무총장에 이근식 의원, 정책위원장에 변재일 의원을 임명하는 등 주요당직 인선을 마무리했다.

통합신당은 또 원내 수석부대표에 노현송 의원을, 사무부총장에 김나순·장경수 의원과 정병원 전 열린우

리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각각 선임했다.

통합신당은 이와 함께 대변인에 양형일 의원을 기용하고 정책조정위원장에 서재관·우제창·우제창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이밖에 전략기획위원장에 박삼돈 의원, 홍보위원장에 최규식 의원, 전국여성위원장에 최영희 전 국군간호사관학교장, 교육연수원장에 강원씨, 당 대표 비서실장에 주승용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盧-DJ '대선구도' 간접 대립?

DJ "호남·충청 연합해야 범여권 대선 승리"

盧 "호남·충청 연합은 지역주의 회귀" 비판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연말 대선구도의 방향 설정 문제를 놓고 간접 대립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노 대통령과 정동영 김근태 전 의장의 총동료 기자회견에는 두 전·현직 대통령의 물밑 대립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양측의 대립 지점은 이른바 '호남·충청 연합'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서부벨트'가 형성돼야 범여권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범여권 통합의 기본은 호남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민주당과의 결합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이나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호남, 충청 출신인 고건,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대선 잠재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도 모두 호충 연합론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역주의 타파와 국민통합을 주장해온 노 대통령은 "호남·충청 연합론은 환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김 전 대통령이 "전통적 지지세력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과는 대비되는 것. 그가 말하는 전통적 지지세력이란 지역적으로 볼 때 '호남+충청'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 김 전 의장이나 김한길 중도 개혁통합신당 대표, 민주당 박상천 대표의 범여권 통합론도 이같은 호충 연합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호충 연합론'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찬반으로 엇갈리는 것은 과

거 대선의 평가 문제와 무관치 않다. 김 전 대통령 등은 97년 대선에서 호남 기반의 국민회의와 충청 기반의 자민당이 연합해 승리했고, 2002년 대선에서도 행정수도 건설공약을 고리로 호충 연합이 형성돼 한나라당에 역전승을 거뒀다고 보고 있다.

반면 노 대통령은 과거 대선 승리가 호충연합 때문만은 아니라는 시각이 짙다. 97년에는 국민신당이던 후보가 한나라당의 표를 쪼갰고 2002년에는 자신과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가 한나라당 표를 분열시켰다고 보고 있다. 상대편의 분열이 승리의 열쇠가 됐다는 판단인 셈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노 대통령과 정, 김 전 의장의 총동료는 노 대통령이 두 전직의장의 통합 주장을 호충 연합론에 따른 지역주의 회귀로 판단, 무원칙한 정치행태로 비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이명박 불법 홍보물 배포

우리, 선관위에 조사 요청

열린우리당은 10일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방송인터뷰 내용 등이 담긴 불법홍보물을 입수,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중앙선관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불법선거운동대책 TF단장'을 맡고 있는 선병렬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시장의 불법홍보물 배포에 대한 증거자료로 녹음테이프와 CD를 입수했다"며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법률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선 단장은 "제보자의 전언에 의하면 2007년 5월3일 서울 동서울터미널 인근에서 한 남자가 테이프와 CD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살포했다고 한다"며 "우리당 법률구조위가 불법홍보물을 분석한 결과 홍보물은 이 전 시장의 방송인터뷰와 간증집회시 발언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사무부총장이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불법홍보물 배포와 관련한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 단장은 또 "테이프와 CD 표지에는 '열정의 지도자', '행함이 있는 믿음', '00교회라는 문구와 함께 이 전 시장의 사진과 약력, 수상경력, 저서명 등이 기재돼 있다"며 "테이프에는 이 전 시장 성장과정, 시장 재직시 업적홍보,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인터뷰 답변내용 등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이 녹음돼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시의회 김남일 의원

결산 감사기간 해외 출장

결산 감사위원회에 배정된 광주시의회 김남일(민주당 비례) 의원이 결산 감사기간에 해외 출장을 나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행정자치

위원회 소속이어서 이번 해외 출장 목적인 투자유치와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1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다른 시의원 2명과 함께 2006년도 시와 시교 육청 결산 감사위원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이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1박 12일 일정으로 광주시 투자유치 단 소속으로 유럽을 방문 중이다. 때

문에 지난 3일부터 시작된 결산 감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예산 감증을 제쳐놓고 상당 시일 외국을 방문하는 것은 의원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결산 감사위원을 투자유치단으로 배정한 의장단의 조치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서울"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륙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TV방송출연 교수진/저자직강★

개강 5월 1일 첫진도 시작반 (주간반,야간반)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야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1위! 새롬행정고시학원 ☎361-8111 서구청앞(농성동)

## 태양광 발전 사업의 선두기업

태양광발전사업 토달 컨설팅

-태양광 발전 사업 신청 및 허가대행  
-책임시공사 선정  
-자금컨설팅  
-태양광발전 사업비 펀드조성 컨설팅  
-태양광 발전 시공 전문기업

※태양광발전 부지 매입 및 임대상담 환영

■협력사 : ㈜대림솔라, ㈜센앤진, 엔알솔루션(주)



사 원 모 집

●경영컨설턴트  
-경영지도사자격증소지자  
-금융권근무경력자  
●전기기사  
-전기기사자격증소지자  
●제출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자격증 사본  
●전형방법  
-e-mail : hbsola@naver.com  
●서류심사후 개별통지

한반도 솔라텍(주) www.hbsola.com T.(062)524-0321,8550, 8558 F.062-525-5689

●화순 북면 3MW 태양광발전 테마파크 1차 1MW 5월 착공●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안심하세요. 타제품 열선대신 탄소면상발열체 사용으로 전자파 제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상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갈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고효율의 복사열 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에 의한 복사열은 시온구 연결

원적외선을 방사하므로 필절효과가 있습니다.

필름난방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원적외선 에너지는 우리 몸 내부를 먼저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난방공사

반도체 도핑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갈레오 필름난방은 당일 시공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난방공사를 실현합니다.



TEL.(062)262-0101